

## “입학에서 졸업까지”...세계로 눈 돌린 국립목포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들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 보면 여전히 숨겨진 기회가 곳곳에 존재한다. 최근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에 최종 선정된 국립목포대학교는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 시절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유학 및 취업 등 해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서울 대학'에만 집중하지 않고 국립목포대와 같은 지역 대학들의 강점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교육 불평등 구조의 시각 지대에 놓인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목포대 글로벌 비전캠프-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3·4학년 미국·중국 복수학위 가능  
세계 100여 개국 대학과 교류 협정  
실무·어학 지원...글로벌 인재 성장



목포대 GTEP 사업단이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했다.

/목포대 제공

### ◇입학과 동시에 해외 유학 기회

목포대에는 총장직속의 글로벌학부가 있다. 이는 입학과 동시에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부이다. 이 학부는 1학년과 2학년 재학 기간 동안 목포대에서 외국어와 기초 전공 교육을 이수한 후, 3학년과 4학년 재학 기간 동안 해외 교류 대학으로 파견돼 심화 전공 교육을 받는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미국 텔라웨어주립대학교와 중국 엔타이대학 등 협정을 맺은 대학들에서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며, 그 결과 더 넓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복수 학위는 두 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해외 복수 학위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나은 급여와 직업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학부 재학중에도 해외 교류 제공

목포대의 해외 진출 기회는 글로벌학부 소속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에게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목포대의 국제교류교육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Exchange & Education, IIEE)은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어학연수, 해외문화 장학연수, 디즈니 해외 인턴십,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해 실질적인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포대는 미국(12개교), 중국(36개교), 일본(12개교), 캐나다(3개교), 호주(3개교), 독일(4개교), 대만(4개교), 스페인, 아르헨티나, 페루, 홍콩, 카자흐스탄 등 세계 100여 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 목포대 전경.

서울 및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높은 어학 성적 기준과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어학연수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반면, 목포대는 비교적 경쟁이 덜해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이번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선정 이후, 내년부터는 재학생의 영어권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IIEE에서 운영하는 디즈니 해외 인턴십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문화 장학연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해외 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국제적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 ◇졸업하면 해외 취업 지원

목포대는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전라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5년 연속 선정된 것은 이 대학이 지역 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졸업생들이 해외에서 전

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어영문학전공(구, 영어영문학과)은 2020년부터 교내 미국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해외 취업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학과 통계를 살펴보면, 졸업생의 취업 도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서울(35.4%), 그 뒤를 이어 LA(18.8%), 전남(12.5%), 뉴저지(8.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포대가 제공하는 해외 취업 기회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목포대는 GTEP(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단 등 다양한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TE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글로벌 무역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무역 관련 기관에 진출하고 있다. GTEP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출입 실무부

터 국제 비즈니스 협상까지 다양한 실무 기술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참여 학생들 중 다수가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거나 해외에서 비즈니스 경력을 시작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GTEP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 목포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단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연수나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해외 기업에서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포대는 졸업 후에도 강력한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다. 졸업생들 중 다수는 다국적 기업에서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배들에게도 멘토링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은 국립목포대학교의 학생들이 단순히 졸업 후 취업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리더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발판이 되고 있다. /박형주 기자

성공할 당신이 꼭 봐야 할 헤럴드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미래를 밝히는 1등 경제매체

당신의 경제를 책임지는 신문입니다

남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팩트뉴스와 시장경제를 통한 정도언론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언론'입니다